

# 취업주부 가사노동의 시간관리전략\*

## The Housework Time Management Strategies on the Employed Wives

원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蔡玉姬

Dept. of Home Management Wonkwang University  
Prof.: Ock-Hi, Cha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관련연구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문제와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housework time management strategies and time spent in housework of employed wives and to understand the variables influenced on them.

The samples were composed of 271 employed wives living in Chunlabuk-D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employed wives spends average 4.5 hours a day on the housework.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ground in the housework time related to all demographic variables.

2) The level of the housework time management strategies of employed wives was lower than the averag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on the housework time management strategies of employed wives was the level of education, the monthly income and employment types. A employed wives with the higher work status, education level and income level utilized more efficient time strategies.

3) The major strategy which influences the housework time is that of simplification. Especially, occupation of housewives and type of house interact with the strategy of simplification. That is, as the housewives with the jobs of blue-collar, production-technology, and clerical technology use the simplification

\* 본 논문은 1996학년도 원광대학교 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strategy much, their amount of housework time was reduced.

## I. 서론

현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의 하나인 여성의 취업증가,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는 가정내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과중한 노동부담과 이로 인한 시간부족을 항상 경험하게 한다. 이것은 가정일과 직장일을 병행하는 데서 오는 시간적 제약이 취업주부의 직업활동에 가장 큰 문제점을 밝힌 연구(구혜령, 1991)와 주부의 취업시간이 가사노동시간에 가장 큰 제약요인임을 밝힌 여러 선행연구(이연숙의 1991; 한경미, 1991)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취업으로 인한 과중한 역할부담은 가정내에서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으로서 많은 연구들은 주부들이 자신의 고용상태와 관계없이 가사노동에 지속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한다(Sanik, 1986; Nickols & Fox, 1983).

특히 우리나라의 취업주부의 증가는 급속한데 비하여 가족원의 가사참여율은 아주 낮거나 거의 분담하지 않는 상황속에서 취업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 감소의 욕구는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

한경미(1991)는 취업주부가 시간갈등을 줄이고 가사노동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간관리전략을 익히고 실생활에 적용하므로써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사노동시간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전략으로서 Storober & Weinberg(1980), Nickols & Fox(1983)는 가족원간의 분담, 가정기기이용, 편의품 및 서비스 이용, 가사노동 수행표준 조정, 생활시간의 조정 및 배분, 여가나 수면시간의 감소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 선행연구를 참고로 본인의 연구(1995)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을 이용하여 취업주부가 가사노동 수행시 사용하는 시간관리전략 실패를 파악하고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과 가사노동시간의 관계를 밝혀봄으로서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하기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자 한다.

## II. 관련연구 고찰

### 1.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

취업주부는 생산노동과 가사노동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가진다. 가사노동은 인간의 성장, 발달과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노동이나 아직도 성별분업이 뚜렷하여 여성에 의해 전담되고 있으며 가사분담에서의 평등은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한경미(1989)는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약 6시간으로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 8.6시간보다 2.6시간 가량 더 적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족원의 가사참여가 증가한 결과이기 보다는 비취업주부보다 시간의 희소성이 증대되어 가사노동시간사용에 제약을 받기 때문으로 짧은 시간내에 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부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홍성희(1993)의 연구에서도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비취업주부에 비해 적게 나타났으나 취업주부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소득이 높은 집단이 시간관리전략을 더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취업주부는 평일과 휴일의 가사노동시간에 큰 차이가 있어 한경미(1990)는 평일 3시간 34분, 휴일 6시간 35분이라고 하였고, 이기영·이승미(1994)는 평일 178분, 휴일 294분이라고 하였다. 伊藤(1989)은 전일제로 취업한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3시간 22분, 휴일 6시간 38분이라고 하였다.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자녀의 수, 막내자녀의 연령, 가계수입, 주부의 고용시간, 교육수준, 연령 등으로 고려되어왔다. 선행연구의 결과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막내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이 많을수록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anik, 1981; Nickols, 1983; 한경미, 1989).

이상의 연구에서 볼때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비취업주부보다 더 적었지만 평일의 두배에 가까운 시간을 휴일의 가사노동시간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사회인구학적 많은 요인들이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

가사노동시간은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자녀연령등 주부의 취업여부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취업주부의 15%이상 이 자주 시간에 쫓기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낌으로서 시간압박과 시간 갈등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관리전략 사용이 요구된다.

조성은(1991)은 연령에 따라 시간관리전략 사용에 차이가 있으며,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에 비해 가사노동수행표준이 낮으며 시간관리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혜리(1995)는 취업주부들의 시간관리전략 사용수준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직업지위와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시간관리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승미·이기영(1990), 조성은(1991), 서경희(1995)는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을 가족원의 분담, 가정기기 및 상품의 대체, 가사노동 수행 표준의 조정, 생활시간분배의 조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은 가사노동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증진시켜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절약하기 위해서 가사노동 수행시 채택되는 전략을 5가지로 규정하였다. 즉 가사노동의 기계화, 가사노동 분담화, 계통화, 가사노동 방식이나 생산물의 간소화, 사회화로 하였다(이에 관한 자세한 기술은 채옥희(1995)참조 바람).

### 1) 가사노동 기계화

편리한 가전제품의 발달과 보급은 가사노동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시켜주는 하나의 대처방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사노동시간을 절감시켜주는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이기영, 1987). 노미

혜(1987)도 가사용품보유도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이정수(1984)도 가정기기의 사용으로 실제의 가사노동 시간절약 효과는 별로 크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김성희(1996)는 가정기기는 주부의 가사노동 절감에 큰 효과를 보이지는 않지만 이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채옥희(1995)의 연구에서 가사노동기계화는 주부의 교육수준과 월총소득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계화를 위해서는 높은 소득이 요구되고 가전제품의 활용면에서 교육이 주요변수임을 알 수 있다.

### 2) 가사노동 분담화

오늘날의 취업주부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가족역할에 전통적으로 남성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직업역할까지 이중역할을 수행하므로 남성도 여성과 같이 이중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사노동은 주부 혼자 전담하는 일로 여기는 것에 대해 모든 가족원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가사노동임을 주장하는 연구(이연숙의 3인, 1991)등이 있으나 아직도 가사노동은 성별분업이 뚜렷하여 여성에 의해 거의 전담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 Nickols & Metzner(1982), Sanik(1981), Wheeler & Arvey(1981), 이연주(1984), 문숙재(1991) 등에서 취업주부의 남편은 비취업주부의 남편들과 비교할때 가사노동참여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취업주부는 고용노동과 가사노동을 합한 총노동은 남성이나 비취업주부의 총노동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과중부담이 주부자신뿐 아니라 가정생활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가사노동의 생략이나 생활표준의 저하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므로 가사노동의 분담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3) 가사노동 계통화

가사노동 계통화는 계획을 세우고 일의 순서를 고려하고 준비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즉 일련의 계획은 어떤 활동이 수행될 시기와 일의 순서가 포함된 것으로 일의 중요성이나 시간에 따라 일의 순서를

정한다. 이것은 시간제약을 받는 취업주부에게만이 효과적이기 보다는 일의 수행에서 필수적인 노력이다. 윤희리(1995)는 가사노동 조직화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직업지위나 교육수준으로서 문제해결력이 높기 때문에 조직화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채옥희(1995)연구에서도 주부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시간관리전략이지만 변수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

#### 4) 가사노동 간소화

취업주부는 가사노동을 통해 기대되는 양과 질을 낮추는 수행표준의 조정뿐만 아니라 생산물의 간소화를 통해 시간제약을 완화시키는 간소화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에 비해 가사노동수행표준이 낮으며 시간관리전략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미, 1989; 조성은, 1990).

이기영(1987)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는 취업에서 오는 시간제약에 대해 상품대체와 같은 방법이 아닌 가정생활표준을 낮추는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가계의 취업주부는 역할 과잉에서 오는 시간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생활표준을 낮춘다고 하였다. 채옥희(1995)의 연구에서도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가사노동간소화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밝혔다.

#### 5) 가사노동 사회화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상품대체나 편의품, 서비스의 이용만으로 한정시켜 보았을때 취업주부일수록 가사노동 사회화 경향이 높다고 밝혔다(Bellant & Foster, 1984; 채옥희, 1995).

정현주(1986), 이기영(1987)은 주부의 연령이 낮아 질수록 외식의 이용도가 높으며 주식으로 빵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고 편의품의 이용률이 높다고 하였다. 김영숙·심미영(1991)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사노동 사회화가 높게 나타났다. 長尺由喜子(1990)의 연구에서 가사노동사회화 촉진 요인은 젊은 연령층이며, 억제요인집단은 연령이 높은 집단과 교육수준이라고 밝힌 것처럼 가사노동사회화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집단과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 III. 연구문제와 방법

#### 1. 연구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차이가 있는가?
- 2)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은 차이가 있는가?
- 3) 가사노동시간에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 2. 자료수집 및 분석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 척도는 채옥희(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약간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가사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관리전략에 관련된 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빈도를 계산하였으며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알기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이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법의 앞으로부터의 변수선택 방법(FORWARD SELECTION)을 사용하였다.

####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내에 거주하는 취업주부 350명에게 1996년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자료수집하였으나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271부만을 자료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71)

변 수	구 분	N	%	변 수	구 분	N	%
주부연령	35세 미만	84	31.0	가족수	2인	36	14.6
	35-39세	61	22.5		3인	124	50.2
	40-45세	84	31.0		4인	60	24.3
	46세 이상	42	15.5		5인 이상	27	10.9
가족형태 (부부포함)	부부만	26	10.1	첫 자녀 나이	0-5세	79	29.2
	결혼전자녀	208	80.6		6-12세	47	17.3
	결혼한자녀	12	4.7		13-18세	90	33.2
	3세대가족	12	4.7		19세 이상	55	20.3
막내자녀 나이	0-5세	118	46.8	주부 교육수준	중졸이하	31	11.5
	6-12세	52	20.6		고졸	85	31.6
	13-18세	61	24.2		대졸	130	48.3
	19세 이상	21	8.3		대학원졸	23	8.6
주부직업	노무직	6	2.3	가계월 평균소득	200만 이하	116	43.1
	생산·기술직	77	28.9		200-300만	101	37.6
	사무·기술직	58	21.8		300만 이상	52	19.3
	전문관리직	125	47.0				
주거형태	단독주택	87	32.1				
	아파트	184	67.9				

#### IV. 결과 및 해석

##### 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 분석 결과는 〈표2〉에 요약되었다.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4.18시간이다. 평일은 3.80시간, 토요일은 4.61시간, 일요일은 5.50시간으로 휴일로 갈수록 가사노동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비취업주부는 평일보다 휴일로 갈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적어지는데 비하여 취업주부는 평일보다 토요일, 일요일로 갈수록 가사노동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는 연구들(한경미, 1991; 이기영외 3인, 1994; 채옥희, 199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모든 변수들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부의 연령이 40-45세에서 가

사노동시간이 많으며, 가족수가 많아질수록 가사노동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가족형태에서는 결혼한 자녀가 있는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으며 부부만 사는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첫자녀의 나이가 13-18세, 막내자녀의 나이가 6-12세인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많다. 이는 학동기에 있는 자녀들이 학업에만 전념하게 하고 그 뒷바라지를 위해서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문관리직으로 갈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지위가 낮은 취업주부들이 가사노동시간이 많다는 안선자·이정우(1996)의 연구와 일치한다. 가계 월평균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주거형태에서는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주

〈표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N=271)

변 수	구 분	N	평 일			토요일			일요일			전 체		
			평균	F	DT	평균	F	DT	평균	F	DT	평균	F	DT
주부연령	35세 미만	84	189		AB	268		A	326		A	220		A
	35-39세	61	258	**	A	274	0.42	A	314	0.47	A	268	*	A
	40-45세	84	253	3.38	AB	293		A	347		A	272	2.35	A
	46세 이상	42	221		B	285		A	330		A	246		A
가족수	2인	36	175		C	233		A	371		A	204		C
	3인	124	216	***	CB	283	**	A	337	0.52	A	243	***	C B
	4인	60	275	8.21	B	297	3.26	AB	335		A	287	6.84	B
	5인 이상	27	339		A	352		B	317		A	345		A
가족형태 (부부포함)	부부만	26	163		A	227		A	280		A	189		A
	결혼전자녀	208	236	**	AB	282	*	AB	335	0.85	A	257	**	AB
	결혼한자녀	12	310	2.79	B	360	2.20	B	314		A	318	2.71	B
	3세대가족	12	240		AB	292		AB	340		A	262		AB
첫 자녀 나이	0-5세	79	181		A	273		A	345		A	218		A
	6-12세	47	209	***	A	252	1.18	A	308	0.46	A	229	***	A
	13-18세	90	289	7.91	B	301		A	328		A	296	5.23	B
	19세 이상	55	219		A	280		A	332		A	244		A
막내자녀 나이	0-5세	118	193		A	265		A	327		A	222		AB
	6-12세	52	284	***	B	297	1.62	A	324	0.71	A	291	***	C
	13-18세	61	250	5.59	AB	298		A	344		A	291	4.39	BC
	19세 이상	21	186		A	232		A	283		A	206		A
주부 교육수준	중졸이하	31	316		A	329		A	347		A	322		A
	고졸	85	268	***	A	304	***	A	352	**	A	285	***	A
	대졸	130	196	9.39	B	267	4.29	A	329	3.05	A	225	8.61	B
	대학원졸	23	159		B	201		B	235		B	176		B
주부직업	노무직	6	380		A	410		A	470		A	397		A
	생산·기술직	77	294	***	AB	285	*	B	327	1.76	B	297	***	B
	사무·기술직	58	212	9.96	BC	297	2.29	B	343		B	242	7.55	B
	전문관리직	125	191		C	263		B	317		B	220		B
가 계 월 평 균 소 득	200만 이하	116	263	***	A	307	***	A	357	**	A	283	***	A
	200-300만	101	212	5.92	B	273	5.50	A	320	2.09	A	236	6.73	B
	300만 이상	52	183		B	226		B	385		B	204		B
주거형태	단독주택	87	266	***	A	299	2.15	A	330	0.01	A	280	**	A
	아파트	184	212	7.42	B	270		A	331		A	237	5.52	B

DT: Duncan's Grouping 결과

유의수준 \* :  $\alpha=0.1$ , \*\* :  $\alpha=0.05$ , \*\*\* :  $\alpha=0.01$

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모든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 관리전략

취업주부의 총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직업, 가계 월평균 소득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표3>에 요약되어 있으며 이를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중졸이하가 2.43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대학원졸이 2.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부의 직업에 따라서는 노무직에 종사하는 주부가 시간관리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 월평균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기영(1987), 이승미(1989), 채옥희(199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비전문직, 단순하위직 직업을 가진 주부들은 전문직을 가진 주부에 비해 상품대체 수준이 낮고 가정기기를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결과와 유사하다. 이상과 같이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이 주부의 교육수준이나 직업, 월소득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것은 당연한 결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인적·물적자원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자원의 활용능력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주부를 위한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을 위해서는 저렴한 상품대체를 위한 사회화와 기계화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의 각 하위 영역별 결과이다.

### 1) 가사노동기계화

가사노동기계화는 주부의 교육수준, 가족수, 첫자녀 나이, 가계월평균소득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를 각 변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수로 보면 3인인 경우 평균 2.11점으로 가장 낮고 4인인 경우 2.42점으로 기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도 중졸

이하에서 평균 1.88점으로 가장 낮으며 고졸 이상집단은 비교적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가계월평균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사노동기계화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들 조성은(1991), 이기영(1987)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득은 기계화를 위한 대체비용과 관련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2) 가사노동의 분담화

가사노동의 분담화는 가족수와 주거형태에 따라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수가 2인인 가족의 분담화는 가장 낮은 2.11점이며, 4인으로 구성된 가족에서 분담화는 2.45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주거형태에 따른 분담화는 단독주택인 경우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분담화가 더 높게 나타났다.

### 3) 가사노동 계통화

가사노동 계통화의 수준은 다른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의 하위영역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교육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채옥희(199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관계없이 특히 교육수준에서 대학원졸 주부는 4.2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중졸이하가 3.7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주부들이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중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 4) 가사노동 간소화

가사노동 간소화는 주부의 연령, 가족수, 첫자녀 나이, 막내자녀 나이, 주부 교육수준, 주부의 직업, 가계월평균소득, 주거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이 35세미만인 집단에서 간소화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가족수가 2-3명인 집단이 간소화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첫자녀의 나이가 많을 수록, 막내자녀의 나이가 13-18세에 있을때 간소화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첫자녀와 막내자녀의 나이가 많을 수록 가사노동의 간소화가 적게 이루어지는 것은 가족주기상 가족이 축소되어 기본적인 가사노동만이

〈표 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 (N=271)

변수	구분	표본	기계화			분담화			계통화			간소화			사회화			전체평균		
			평균	F	DT	평균	F	DT	평균	F	DT	평균	F	DT	평균	F	DT	평균	F	DT
주부연령	35세 미만	84	2.10		A	2.27		A	3.97		A	3.27		A	2.03		A	2.73		A
	35-39세	61	2.39	1.55	A	2.19	0.29	A	3.86	0.43	A	3.01	***	AB	2.23	2.72	B	2.74	1.27	A
	40-45세	84	2.18		A	2.27		A	3.88		A	2.79	6.62	B	2.08		AB	2.64		
	46세 이상	42	2.20		A	2.18		A	3.88		A	3.17	A	1.96	A		2.68			
가속	36	2.21	A		2.11	A		4.12	A		3.30	A	2.22	A	2.79					
가족수	3인	124	2.11	*	A	2.19	*	A	3.83	0.18	A	3.15	***	A	2.21	***	A	2.70	0.62	A
	4인	60	2.41	2.30	A	2.45	2.37	A	3.98		A	2.71	6.29	B	2.11	4.72	A	2.73		
	5인 이상	27	2.12	A	2.30	A	3.92	A	3.00		AB	1.75	B	2.62						
	가속	26	2.10	A	2.10	A	3.92	A	3.20		A	1.91	A	2.65						
가족형태 (부부포함)	부부만	26	2.10		A	2.10		A	3.92		A	3.20		A	1.91		A	2.65		A
	결혼전자녀	208	2.20	1.16	A	2.23	0.39	B	3.89	0.47	A	3.05	0.71	A	2.14	**	A	2.70	0.40	A
	결혼한자녀	12	2.62		A	2.32		B	3.86		A	3.21	A	1.85	2.89	A	2.77			
	3세대가족	12	2.19		A	2.33		B	4.11		A	2.88	A	1.91	A	2.68				
가속	26	2.10	A		2.10	A		3.92	A		3.20	A	1.91	A	2.65					
첫자녀나이	0-5세	79	2.04		B	2.25		A	4.02		A	3.26		A	1.96		A	2.71		A
	6-12세	47	2.23	*	A	2.17	0.26	A	3.80	1.45	A	3.20	***	A	2.12	***	A	2.70	1.58	A
	13-18세	90	2.382	2.61	A	2.28		A	3.90		A	2.86	5.29	B	2.25	6.05	B	2.73		
	19세 이상	55	15	A	2.21	A		3.84	A		2.92	B	1.94	AB	2.61					
	가속	79	2.04	B	2.25	A		4.02	A		3.26	A	1.96	A	2.71					
가속	47	2.23	A	2.17	A	3.80		A	3.20		***	A	2.12	***	A	2.70				
막내자녀나이	0-5세	118	2.13		A	2.21		A	3.93		A	3.18		A	2.03		A	2.70		A
	6-12세	52	2.16	0.17	A	2.14	0.32	A	3.79	0.57	A	3.10	***	A	2.16	**	A	2.67	0.66	A
	13-18세	61	2.14		A	2.25		A	3.88		A	2.73	5.90	B	2.13	3.11	A	2.63		
	19세 이상	21	2.26		A	2.31		A	3.89		A	3.29	A	1.79	B	2.71				
가속	118	2.13	A		2.21	A		3.93	A		3.18	A	2.03	A	2.70					
주부교육수준	중졸이하	31	1.88		B	2.21		A	3.70		A	2.56		A	1.87		A	2.43		A
	고졸	85	2.41	***	A	2.29	0.99	A	3.89	**	A	2.82	***	A	2.17	*	B	2.72	***	B
	대졸	130	2.14	3.96	A	2.19		A	3.91	3.51	A	3.30	14.8	B	2.08	2.63	AB	2.72	9.67	B
	대학원졸	23	2.27	A	2.45	A		4.27	B	3.30	B	2.02	AB	2.86						
가속	31	1.88	B	2.21	A	3.70		A	2.56	A	1.87	A	2.43							
주부직업	노무직	6	1.63		A	1.962		A	3.63		A	2.44		A	1.77		A	2.29		A
	생산.기술	77	2.33	1.78	B	.39	1.66	A	3.82	1.73	A	2.76	***	AB	2.17	1.64	B	2.69	**	B
	사무.기술	58	2.16		B	2.17		A	3.87		A	3.14	8.45	B	2.09		AB	2.69	3.53	B
	전문관리	125	2.19		B	2.19		A	3.99		A	3.23	B	2.04	AB		2.73			
가속	6	1.63	A		1.962	A		3.63	A		2.44	A	1.77	A	2.29					
가계월평균소득	200만 이하	116	2.142	**	A	2.23		A	3.89		A	2.85	***	B	1.99	**	A	2.62	***	A
	200-300만	101	14	3.30	B	2.21	0.28	A	3.91	0.10	A	3.20	7.13	A	2.08	4.55	B	2.71	7.27	B
	300만 이상	52	2.46	B	2.31	A	3.93	A	3.19	A	3.19	A	2.26	B	2.83					
주거형태	단독주택	87	2.28	1.22	A	2.42	***	A	3.93	0.15	A	3.18	***	A	2.04	0.71	A	2.69	0.02	A
	아파트	184	2.17		A	2.15	7.80	B	3.89		A	2.78	17.2	B	2.10		A	2.70		

DT: Duncan's Grouping 결과

유의수준 \* :  $\alpha=0.1$ , \*\* :  $\alpha=0.05$ , \*\*\* :  $\alpha=0.01$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표준을 낮추는 가사노동의 간소화가 적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며,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일수록 가사노동의 간소화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가사노동 사회화

가사노동 사회화수준은 가족수, 가족형태, 첫 자녀 나이, 막내자녀 나이, 주부의 교육수준, 가계월평균 소득액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수가 많아질수록 사회화의 수준이 낮아지고 첫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사회화수준이 높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고, 월평균소득이 많아질수록 사회화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영숙·심미영(1991), 조성은(1991), 채옥희(199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소득이 가사노동사회화에 유의적인 변인임을 알 수 있다.

## 3.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과 가사노동시간과의 관계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이 가사노동 시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주부의 전체적인 가사노동시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은 간소화전략이며 다음이 사회화, 계획화, 계통화, 분담화 전략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소화전략만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일이나 토요일의 가사노동시간에도 간소화 전략만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관리전략 변수의 선택을 위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간소화전략 변수를 그 크기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여 가사노동시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은 가사노동시간과 간소화전략 변수가 1차 선형 및 2차 선형의 관계가 있는지 백운봉(1989)을 참고하여 적교비교의 계수로서 일원분산법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일의 가사노동 시간과 전체 가사노동시간은 간소화전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간소화전략의 활용정도가 높은 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은 적어지고, 활용정도가 낮은 집단에서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요일인 경우에는 간소화전략의 활용정도가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토요일인 경우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소화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취업주부는 일요일을 제외한 토요일과 평일에 가사노동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간소화전략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표 2〉와 〈표 3〉의 결과를 참고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경우 간소화전략 변수와 관계없이 평일과 전체 가사노동시간에 차이가 있다. 토요일에는 주부의 교육수준, 가계월평균소득, 주부직업별, 일요일에는 주부교육수준, 가계월평균소득에서만 가사노동 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간소화전략 변수인 경우도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상관없이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서는 가계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가사노동 시간에서는 첫자녀나이와 가계월평균소득에 따라서 가사노동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1차 선형만이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는 평일의 첫자녀나이, 가계월평균소득에서 간소화전략을 활용하면 할수록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차 선형만이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는 평일의 첫자녀나이, 주부 교육수준에서는 간소화 전략을 중정도로 사용하는 주부는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의 효과에서 평일의 주부직업과 간소화 전략, 평일, 토요일 전체가사노동 시간과 주거형태에

〈표 4〉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 (N=271)

종속변수	순서	투입변수	회귀계수	부분-R <sup>2</sup>	모델-R <sup>2</sup>	F-값	Prob>F
평일가사노동시간	1	간소화	-32.1409	0.0317	0.0317	8.3106	0.0043
	2	사회화	-28.4065	0.0047	0.0364	1.2329	0.2679
	3	기계화	16.5793	0.0067	0.0430	1.7536	0.1866
	4	분담화	4.9608	0.0004	0.0434	0.0997	0.7524
	5	계통화	-5.7406	0.0005	0.0439	0.1390	0.7096
토요일가사노동시간	1	간소화	-28.0341	0.0205	0.0205	5.3245	0.0218
	2	사회화	-20.4246	0.0030	0.0234	0.7673	0.3819
	3	계통화	-10.8177	0.0017	0.0251	0.4343	0.5105
	4	기계화	7.2641	0.0012	0.0263	0.3215	0.5712
	5	분담화	-0.8660	0.0000	0.0263	0.0042	0.9481
일요일가사노동시간	1	간소화	-27.9388	0.0147	0.0147	3.7876	0.0527
	2	사회화	-16.9540	0.0039	0.0186	1.0152	0.3146
	3	기계화	-8.7530	0.0020	0.0206	0.5156	0.4734
	4	분담화	-8.1651	0.0014	0.0221	0.3711	0.5436
	5	계통화	-4.6449	0.0003	0.0224	0.0733	0.7868
전체가사노동시간	1	간소화	-32.0626	0.0355	0.0355	9.3138	0.0025
	2	사회화	-23.5399	0.0044	0.0399	1.1646	0.2816
	3	기계화	10.6910	0.0032	0.0432	0.8493	0.3576
	4	계통화	-5.3765	0.0004	0.0436	0.1149	0.7349
	5	분담화	3.4009	0.0003	0.0439	0.0787	0.7793

〈표 5〉 간소화 전략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 (N=271)

	구분	N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		
			평균	F	DT	평균	F	DT	평균	F	DT	평균	F	DT
간소화	하(2.5이하)	79	255	**	A	301		A	335		A	272		A
	중(2.5-3.7)	140	236	4.32	A	281	2.12	AB	339	1.30	A	257	**	A
	상(3.7이상)	52	177		B	245		B	295		A	199	4.59	B
	1차선형			***			**						***	
				8.24			4.21			1.70			8.50	
	2차선형						0.21			1.30			1.59	

DT: Duncan's Grouping 결과

유의수준 \* :  $\alpha=0.1$ , \*\* :  $\alpha=0.05$ , \*\*\* :  $\alpha=0.01$

〈표 6〉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변인과 간소화전략(N=271)

변 수	자유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
		Pr>F	Pr>F	Pr>F	Pr>F
첫 자녀나이	3	0.0001(***)	0.3188	0.7609	0.0016(***)
간소화	2	0.1395	0.2187	0.2463	0.0752(*)
1차선행	1	0.0100(***)	0.1068	0.1946	0.0471(**)
2차선행	1	0.0626(*)	0.3190	0.2524	0.0871(*)
상호효과	6	0.7724	0.6995	0.4200	0.8215
주부교육수준	3	0.0001(***)	0.0062(***)	0.0312(**)	0.0001(***)
간소화	2	0.1277	0.2543	0.3362	0.1125
1차선행	1	0.2781	0.4888	0.8457	0.3228
2차선행	1	0.0940(*)	0.5163	0.4663	0.1244
상호효과	6	0.2851	0.9885	0.9548	0.5770
주부직업	3	0.0001	0.0759(*)	0.1506	0.0001(***)
간소화	2	0.0920	0.1007	0.1680	0.0650
상호효과	6	0.0780(*)	0.3161	0.2173	0.2433
가계월평균소득	2	0.0193(**)	0.0084(***)	0.0700(*)	0.0074(***)
간소화	2	0.0182(**)	0.0804(*)	0.2946	0.0183
1차선행	1	0.0516(*)	0.0841(*)	0.5163	0.0556
2차선행	1	0.1540	0.5395	0.1717	0.1449
상호효과	4	0.5429	0.8319	0.7559	0.5999
주거형태	1	0.0057	0.1398	0.9636	0.0170
간소화	2	0.0485	0.1373	0.2335	0.0417
1차선행	1	0.2168	0.3550	0.7594	0.2442
2차선행	1	0.3312	0.6371	0.6080	0.3553
상호효과	2	0.0058(***)	0.0575(*)	0.2898	0.0074(***)

유의수준 \* :  $\alpha=0.1$ , \*\* :  $\alpha=0.05$ , \*\*\* :  $\alpha=0.01$

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 간소화 전략에 따른 주부직업별, 주거형태별 가사노동 시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표 7〉

주부직업별 간소화전략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무직, 생산기술직, 사무기술직, 주부들이 가사노동 간소화를 많이 사용하므로써 가사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 전문직 주부집단은 간소화 전략이 가사노동시간의 증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형태에서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는 간소화

전략을 사용하므로써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 있으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는 간소화 전략을 증 정도로 활용할 때 가사노동 시간이 가장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주거형태에 따라서 가사노동 간소화의 영향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로 보아 가사노동 간소화전략이 가사노동시간 단축에는 절대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부가 가정에서 꼭 해야 되는 가사노동 과정을 단축하거나 생략하므로써 가족원의 건강, 위생적 측면에 저해를 가져온다는 연

〈표 7〉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경우 주부직업별, 주거형태별, 기사노동시간평균

인구변인	요 일	구 분	간소화	N	평 균	분산의 추정값	판단결과
주부직업	평 일	노무직	하	3	320.0	21165.146	A
			중	3	240.0		B
			상	0			판단불가
		생산기술직	하	32	310.3	~	A
			중 상	39 6	301.2 156.6		A B
		사무기술직	하	18	255.0	~	A
			중 상	25 15	202.8 180.0		B B
		전문관리직	하	24	185.0	~	A
중 상	70 30		203.4 175.0	A A			
주거형태	평 일	단독주택	하	39	231.5	22145.812	A
			중	43	299.5		B
	상		5	248.0	AB		
	아파트	하	40	278.2	~	A	
		중	96	107.8		B	
		상	47	169.7		B	
	토요일	단독주택	하	39	276.6	22734.350	A
			중	43	320.0		B
	상		5	296.0	AB		
	아파트	하	40	324.7	~	A	
중		97	264.7	B			
상		47	240.0	B			
전 체	단독주택	하	39	248.9	18491.254	A	
		중	43	309.1		B	
		상	5	270.0		AB	
	아파트	하	39	296.2	~	A	
중 상		96 46	234.8 192.2	B B			

\* 분산의 추정값은 이원분산분석의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 Error)이며 판단결과는 각각의 평균을 비교하여 판정하였음

구(袖井孝子外 3人, 1993)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을 파악하여 취업노동과 가사노동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1일 평균 4.5시간으로서 평일 4.3시간, 토요일 4.8시간, 일요일 5.4시간이다. 휴일로 갈수록 가사노동시간이 많아지고 있으며 전업주부에 비하여 가사노동시간은 적으나 취업노동과 결부시켜 볼 때, 하루의 노동량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보아 취업주부는 휴일도 없이 과중한 노동부담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변인이었다. 즉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고, 월평균소득이 높으며, 전문직 취업주부일수록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효율적인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의 사용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자원의 활용능력은 높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취업주부를 위한 가사노동 사회화 상품대체비용의 저렴화와 가정기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사노동시간관리전략의 하위영역인 가사노동 기계화는 주부의 교육수준, 첫자녀나이, 월평균 소득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가사노동 분담화는 가족수와 주거형태에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수가 2인 일때 분담화가 낮고 4인 이상일때 분담화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은 낮은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가사노동 계통화는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의 하위영역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가 나타났으나 교육수준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가사노동 간소화는 주부의 연령, 가족수, 첫자녀 나이, 막내자녀 나이, 주부의 교육수준, 직업,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가사노동 사회화는 가족수, 가족형태, 첫자녀 나이, 주부의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은 간소화전략으로서 일요일을 제외한 토요일과 평일에 가사노동 간소화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주부는 가사노동 시간을 크게 감소시킬수 있다. 특히 주부의 직업, 주거형태와 가사노동 간소화전략은 상호작용효과가 있다. 즉 주부의 직업이 노무직, 생산기술직, 사무기술직에서 간소화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이 단축되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에도 간소화전략의 사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가사노동 간소화전략이 주부의 취업형태에 따라 가사노동시간 단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꼭 해야되는 가사노동과정을 단축하거나 생략하므로써 가족원의 건강·위생적 측면에서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주부는 가족원들이 가사노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분담화를 증가시키고 가사노동 사회화, 기계화는 주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계소득과 사회여건이 주어져야 가능한 것이므로 상품대체의 저렴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기기의 개발과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구혜령(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 김영숙·심미영(1991), 가사노동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1-207.
- 3) 김성희(1996), 가정기기 도입에 따른 가사노동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4) 김지연(1994), 취업주부의 시간관리행동이 시간갈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5) 노미혜(1987), 여성의 취업실태조사-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 연구 5(1).
- 6) 문숙재(1991),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85-302.
- 7) 백운봉(1989), 실험의 계획과 분석, 자유아카데미.
- 8) 안선자·이정우(1996), 직업지위가 낮은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85-200.
- 9) 윤혜리(1996),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과 심리적 복지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0)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1) \_\_\_\_\_·이승미(1987),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3), 11-26.
- 12) 이미숙(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3) 이연숙외 3인(1991),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 14) 이정숙(1992),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과 가정관리행동 및 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5) 장윤옥(199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직주부의 시간계약지각이 역할갈등과 시간 제약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6) 조성은(1991),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7) 채옥희(1995), 확대기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88-98.
- 18) \_\_\_\_\_(1996), 축소기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 원광대학교 교수논문집 31, 1235-1249.
- 19) 환경미(1989),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13.
- 20) \_\_\_\_\_(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71-190.
- 21) \_\_\_\_\_(1993), 시간관리행동과 관련변수: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83-95.
- 22) \_\_\_\_\_(1995), 기혼 취업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47-57.
- 23) 홍성희(1993), 주부의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 배분에 관한 체계론적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55-68.
- 24) Belleant & Foster(1984),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 on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 700-707.
- 25) Nickols, S. Y. & Fox, K. D.(1983), Buying time and saving time :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produ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197-208.
- 26) Sanik, M. & Mauldin, T.(1986), Single versus two parent families: A comparison of mothers' time, *Family Realtions* 35, 53-56.
- 27) Strober, M. H. & Charles B. Weinberg(1980),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 338-348.
- 28) Wheeler, C. L. & Arvey, R. D.(1981),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he famil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1), 10-20.
- 29) 度邊・直井(1992), 家事の外部化の規定要因に關する 研究, 東京學芸大學紀要 第6部 問44集, 144-151.
- 30) 伊藤 セツ外 8人(1994), 生活時間と 生活様式, 光生館, 36-37.
- 31) 長尺由喜子外 1人(1990), 家事サービスの利用要因に 關する 構造的 分析(第2報), 日本家政學會誌 41(8), 697-706.
- 32) 袖井孝子外 3人(1993). 共働き 家族, 家政教育社, 47-86.